



슈미드의 역사학

아담 보넷

토론토 대학 동아시아 학과 박사과정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은 슈미드 박사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연구에 기반¹⁾을 두고 쓴 글이다. 그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제국주의 팽창기에 조선에 나타난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중심으로 국문(한글)으로 씌어진 신문들을 분석하여 근대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의 등장과 상호 영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문명개화의 담론을 통해 근대주의, 민족을 통한 새로운 국가관의 등장, 신채호 등에 의해 발전된 민족 중심의 새로운 역사관과 간도문제를 둘러싸고 새롭게 나타난 영토관에 대해 묘사하고 분석한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다. 물론 이러한 민족주의의 발전이 세계와 고립되어 한국의 전통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민족주의가 반드시 역사발전론에 의해 달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시기 제국주의의 팽창 속에서 민족국가와 민족주의 역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였기에, 한국의 민족 개념과 민족주의 발전 역시 그러한 세계적인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슈미드는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1895~1919년까지 이루어졌던 다양한 학설과 문제 의식이 해방 이후에도 남북 역사학계에 계속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식민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통해서 본 근대주의²⁾

슈미드의 역사학에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관계다. 알다시피 한국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친일문제'와 '친일사관'은 한국만이 당면한 독특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논자들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노예 장사는 근대화와 산업화, 자본주의 발전으로 없어진 폐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던 현상들이다. 식민지와 유럽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자본주의와 근대국가의 발전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의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의 역할은 매우 컸다.³⁾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이 출판되기 전인 2000년에 슈미드는 <Colonialism and the 'Korea Problem' in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Japan: A Review Article>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⁴⁾ 이 글에서 슈미드는 일본의 근대사를 연구하는 영미계 학자들이 제국과 식민지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점, 설령 고려한다 해도 직접 식민 체제를 경험한 상대의 반응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을 문제시하고 있다. 슈미드는 이 논문에서 메이지(明治) 시대의 일본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는 국가였지만, 영미계 학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일본과 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954~956). 이미 근대 유럽사 연구에서는 근대국가와 그 식민지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주목하고 있던 터였다. 특히 영국 근대사의 경우에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하이 티(high tea: 오후 늦게 또는 저녁 일찍 먹는 가벼운 식사. 보통 홍차와 샌드위치—웁긴이)는 식민지로부터 제공된 경제적 인 도움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웠고,⁵⁾ 식민지와와의 관계가 영국인들의 내부적 정치 참여와 성별, 계급, 그리고 인종의 개념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논하는 학자들이⁶⁾ 많음에도, 일본 근대사 연구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952~954).

슈미드는 일본의 식민지 팽창과 제국주의를 논하는 학문들이 지나치게 일본의 입장에서만 연구되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예컨대 두스(Duus)가 일본의 한국 침탈과 그 속에서 일본인들의 정신 세계를 묘사하지만, 한국어로 된 글을 보지 못한 결과 흔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국관을 일반적인 사실인 양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비판했다(965~970).⁷⁾ 레이먼 마이어스(Raymon Myers)와 마크 피티(Mark Peatie)가 공동 편집한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역시 일본의 제국 정책과 경험 등 여러 문제를 논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식민 과정을 이해한다는 점과 식민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제와 똑같은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을 취하

기에,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런 경향을 날카롭게 비판했다(956~961).⁸⁾ 슈미드는 그의 논문 결론에서 같은 시대를 연구하는 한국의 최서경⁹⁾과 일본의 오구마 에이지,¹⁰⁾ 유럽의 식민지를 연구하는 프레더릭 쿠퍼(Frederick Cooper)와 앤 로라 스톨러(Ann Laura Stoler)¹¹⁾의 선례에 따라, 식민국의 시야에서 식민지를 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단한 이중어 연구(bilingual approach)를 거쳐 식민국과 식민지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971~973).¹²⁾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은 그러한 이중어 연구의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슈미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Colonialism and the 'Korea Problem'>에서 식민지들은 식민국이 마음대로 바꾸어버릴 수 있는 빈 공간이 아니었다는 쿠퍼와 스톨러의 지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은 일본의 근대 사상이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일정한 비중을 두면서도 단순히 '식민국으로부터 식민지로'의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제국 정책을 맡은 자들이 한국 지식인들과 공유한 문명개화의 논리를 조선·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편입하고자 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제 사관에 의해 일본이 한국인과 한국 역사를 폄하하여 본질적으로 사대주의적이었다든가 또는 당파적이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침탈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치화된 학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구한말에 일본의 역사서는 한국 역사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대주의와 봉당정치에 대한 비판은 순수하게 일본 사학자들만이 가졌던 입장이 아니라, 이미 구

한말의 한국 지식인들의 신문 기사 속에서도 다루어졌던 논점들이 다(101~138).

그렇기에 1960년부터 논의되어온 '일제 사관 청산'은 중요한 식민 청산 작업이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남한에서 구한말 지식인들을 '애국계몽운동'으로 정의하여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욱더 그러하다. 물론 일제 사관에 의해 상당한 왜곡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일제 사관은 때로 구한말 지식인들의 학설을 편입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른바 '애국계몽운동'의 입장과 일제의 입장이 혼돈되어 서로 구별하기가 곤란할 때가 종종 있다(264~267). 일제 사학자와 신채호는 똑같이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적 통일을 주장했지만, 일제 사학자들의 만선사관(滿鮮史觀)과 신채호의 역사학의 차이는 그런 역사적인 통일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느냐에서 찾을 수 있다(226~228). 또한 편입과 왜곡 이외에 구한말 애국계몽운동 지식인들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근대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분위기에 흡수되어 일제와의 유사한 논점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예컨대 슈미드는 국문 신문들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영국이 인도와 아프리카, 일본이 대만과 북해도의 아이누를 찬탈하는 것을 오히려 문명개화의 한 방면으로 찬송했음을 지적한다(117~121).¹³⁾

혹자는 세계화를 통해 민족주의의 소멸을 예언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사만 보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9세기 말 세계화 속에서 민족주의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주의의 유래가 되었던 것은 그 한 예다. 구한말과 일제 초기

의 조선 민족주의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한국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의 민족주의와 주체의식은 자국 중심주의에 입각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난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신채호가 이야기한 주체성은 한국의 특수성을 지시하는 용어이지만 지극히 국제적이고 세계화된 표현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 시기에 많은 식민지 사회집단들은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20세기와 단절과 연속으로서 조선 후기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은 제국주의 속에서 한국 민족주의의 등장을 묘사하고 동시에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기보다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슈미드의 연구는 겔너(Gellner)¹⁴⁾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¹⁵⁾, 홉스봄(Hobsbawm)¹⁶⁾을 비롯해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근대주의와 자본주의가 민족주의의 등장과 불가피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식민지들이 식민국을 위한 빈 공간이 아닌 만큼, 조선 후기의 사상과 사회적인 요소들도 한국의 근대를 만드는 데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슈미드는 민족과 근대화가 역사 발전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목표라는 사고에 반대한다. 흔히 전통사회나 전근대적인 사회란 근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슈미드는 각 나라의 '전통사회나 전근대적 사회'가 곧 보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입

장을 피하고자 한다.¹⁷⁾

슈미드는 《제국 그 사이의 한국》에서 조선 후기의 사회 구성과 국가 이념에까지 깊은 연구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시종일관 조선 후기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구한말과 일제 초기의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에 대한 검토에서 1712년 정계비가 세워졌던 시기부터 시작하여 조선 후기의 영토 개념의 발전과 연결시킨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의 북녘 경계가 이미 조선 후기에 상당한 정확성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영토 개념이 비교적 강했던 점이다.

흔히들 뚜렷한 영토 개념은 근대 유럽으로부터 제국주의를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옮겨졌다고 유럽 중심주의적으로 주장되곤 하지만,¹⁸⁾ 조선 후기와 청나라 사이에 경계선의 발전은 그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1712년에 결정된 경계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다시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경계선에 대한 이 논쟁은 서구의 관여 없이 간도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조선 농민들이 당시 만주 지역의 입주 허가를 받은 한족과의 충돌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다. 그 분쟁은 1909년 간도협약에 의거해 완전히 일본 제국주의 손으로 편입되었지만, 경계에 대한 논쟁 자체의 시발점은 일본, 즉 식민국과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119~216).¹⁹⁾

슈미드에 따르면, 구한말부터 영토관에 다소 변화가 생겼음을 인정하지만, 제국주의 팽창 속에서 이 변화는 직선적이고 단일적인 것이 아니었다. 1907년부터 강조된 '민족' 개념으로 인해 백두산과 만주가 중요시되었으며, 오히려 경계선과 무관하게 옛날의 한국 영토를 되찾고자 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221~223). 또한

일본이 한반도 내부에 대한 힘이 확장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지 동포'들이 오히려 조국의 문명개화를 더욱더 잘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 국문 신문에서 표현되었다. 슈미드는 이러한 내외(內外) 상황의 변모를 통해 새로운 영토 개념을 지적한다(236~252).

저자는 구한말과 일제시대 초기의 사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근대 역사의 아버지로 생각되는 신채호는 조선 후기의 역사서, 일본의 '근대적' 역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삼아 개성 있는 학문적 업적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신채호는 유교적인 역사관에서 다소 벗어나면서도 연이어 민족주의와 무정부주의에 몰두하였다. 역사학자일 뿐만 아니라 작가인 신채호는 '근대'와 '전근대', '전통'과 '진보' 같은 도식적인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한국 학계에서 매우 다양하게 신채호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동시에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신채호의 위치를 이해하였던 한영우,²⁰⁾ 강만길,²¹⁾ 신용하,²²⁾ 이만열,²³⁾ 마이클 로빈슨,²⁴⁾ 헨리 임²⁵⁾은 신채호를 한국 근대 지성사와 사학사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인물로 한결같이 평가하고 있다.

슈미드 역시 《제국 그 사이의 한국》에서 신채호에 대해 중심적인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신채호는 새로운 역사관을 구성하였는데 조선 후기의 가장 보편적인 역사 서술인 족보를 적용하며 민족의 족보를 추적하였고, 그 추적 과정에서 기자의 역할을 줄인 반면 단군의 역할을 강조하게 하였다(180~188). 직선적이고 목적론적인 역사 서술을 따르는 족보는 민족 사관과 상당히 쉽게 합치될 수 있는 역사 서술 방식이었다. 따라서 신채호는 족보 추적을

통해 민족 사관을 구성하는 것이 조선 후기의 전통을 이어받는 동시에 한국의 전통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신채호의 이러한 역사관은 전 시대와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히 달라진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단절은 아니었다.

슈미드는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를 비역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진보적·긍정적 현상으로도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탈피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근대주의와 세계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한국 근대사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세계사와 한국사, '전통'과 '근대'를 단절이 아닌 연속성으로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슈미드의 역사학은 세계사와의 연결을 시도하면서, 한국 학계의 한국사 전통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런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많은 독자와 소통하기를 소망하며, 날카로운 비판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 1) 홍영화 씨의 한국어 교정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래도 남아 있는 이 글의 모든 한글 오류는 본인의 책임이다.
- 2) Andre Schmid, "Constructing independence: Nation and identity in Korea, 1895~1910"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1996.
- 3) Frederick Cooper and Ann Laura Stoler eds., *Tensions of Empire: Colonial Culture in a Bourgeois Worl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Nicholas Dirks ed., *Colonialism and Cultur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2); Gyan Prakesh ed., *After Colonialism: Imperial Histories and Postcolonial Displacements*. (Princeton: Princeton UP, 1995).
- 4)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9, No. 4 (Nov. 2000), pp. 951~976.
- 5) Sidney Mintz. *Sweetness and Power: The Place of Sugar in Modern History*. (New York: Viking Press, 1985).
- 6) Anne McClintock. *Imperial Leather: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Colonial Conquest*. (New York: Routledge, 1995); Kathleen Wilson, *The Sense of People: Politics,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Cambridge UP, 1995); James Walvin, *Fruits of Empire: Exotic Produce and British Taste, 1660~1800*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Macmillan, 1997); Antoinette Burton, *Burdens of History: British Feminists, Indian Women, and Imperial Culture, 1865~191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4); Nupur Chaudhuri and Margaret Strobel, eds., *Western Women and Imperialism: Complicity and Resistanc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 7) Peter Duus,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8) Ray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Princeton: Princeton UP, 1984). 마이어스와 피티는 슈미드의 비판이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왜곡시켰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 Ray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Communications to the Editor,"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0, No. 3, (August, 2001), pp. 813~816.
- 9) 최석영. 《일제의 동화 이데올로기의 창출》(서경문화사, 1997).
- 10) 小熊 英二. 《日本人 境界: 沖縄, アイヌ, 臺灣, 朝鮮 植民支配から 復歸運動まで》(東京: 新曜社, 1998).
- 11) Frederick Cooper and Ann Laura Stoler eds., *Tensions of Empire: Colonial Cultures in a Bourgeois Worl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 12) 슈미드는 영미계에서도 그러한 연구 사례를 몇 가지 언급한다. 예컨대 Kim Brandt "The Folkcraft Movement in Early Showa Japan"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Alexis Dudden "International Terms: Japan's Engagement in Colonial Control"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그 이외에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Press, 1993) 와 Louise Young,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일본의 제국 제의를 잘 검토한 연구 사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다만 슈미드는 다 나카(Tanaka)가 일제 동양 학자들을 비판하는 그의 글에서 막상 다나카 자신이 일제 동양학 속에서의 조선학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 (961~964).
- 13) 그런 문제에 대해 약간 다른 식으로 논한 슈미드의 논문 <오리엔탈 식민주주의 도전 : Anglo-American 비판의 한계> 《역사문제연구》 12호, 2004년 6월, 157~186 쪽)에서는 그 시대에 드물게 일제를 비판하고 한국의 독립을 옹호한 것으로 칭송을 받은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와 맥켄지(Frederick A McKenzie, 1869~1931)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다. 논문에서 슈미드는 한국의 독립을 지지한 두 사람이 반제국주의자이기 커녕 오히려 인종주의자이자 서구중심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논문은 헐버트와 맥켄지가 서구중심주의와 인종주의에 입각하여 비기독교적이며 비백인 국가인 일본 제국의 확장을 저지하고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비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14)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N.Y.: Cornell UP, 1983).
- 15)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ed. London: Verso, 1991).
- 16)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83).
- 17) 이와 비슷한 입장은 슈미드가 공편한 《Nation Work》에 실려 있는 많은 학자들의

글 속에서 엿볼 수 있다. Timothy Brook and Andre Schmid ed., *Nation Work: Asian Elites and National Identit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18) Mathew H. Edney, *Mapping an Empire: The Geographical Construction of British Ind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Thongchai Winchakul,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graphy of a N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 19) 간도 백대산과 조선 후기의 영토관에 대한 연구가 《白山學報》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데, 특별히 언급되는 학자 중에 신기석(《간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담구당, 1979), 양태진(《한국 국령사 연구》, 법경출판사, 1992)이 있다.
- 20)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일조각, 1993).
- 21) 《신채호》(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 22) 《한국 근대 사회사상 연구》(일지사, 1987).
- 23)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문학과비평사, 1990).
- 24) "National Identity in the Thought of Sin Ch'aeho" *Journal of Korean Studies* 5 (1984).
- 25) Henry Em, "Minjok as a Modern and Democratic Construct: Sin Ch'aeho's Historiography." In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336~361

찾아보기

[가]

- 가야 449, 512, 517, 535, 615
- 간도 16, 459~461, 471, 472, 481, 484~492, 505~508
- 간도 영유권 489
- 갑오개혁 15, 97, 101, 103, 104, 173, 261, 413
- 강화조약 373, 376
- 강희사전 192
- 강희제 472
- 개리 레드야드(Ledyard, Gariy) 41, 495
- 개성 52
- 격물(格物) 222, 223
- 고구려 16, 28, 47, 175, 346, 355, 394, 400, 439, 447, 521, 531, 608
- 고마츠 미도리 371
- 고사기(古事記) 344~346, 348
- 고조선 200, 409, 410, 420, 445, 461, 465, 529
- 고종 15, 28, 98~101, 137, 148, 150, 195~207, 333, 379, 440, 567, 577
- 고쿠시칸 349
- 고토회복주의 83, 608, 613, 614
- 광개토왕 47~52, 65~67, 430
- 광개토왕비 47~52, 65, 70, 79, 82~89, 590, 592
- 광무개혁 101, 103, 201
- 구메 구니다케 349
- 국경문제 478, 482, 483, 487, 492, 493, 495, 507, 508
- 국내 언론 84, 385, 514, 553, 559, 563~566
- 국문(國文) 180, 185, 187, 189, 576
- 국사 6, 28, 307, 349, 351, 370, 593, 601
- 국사신론 593
- 국성(國性) 341, 407, 551
- 국수(國粹) 14, 75, 327, 331, 341, 407, 545, 547, 553, 558, 560, 571
- 국제법 96, 111, 120, 274
- 국혼 14, 75, 76, 252, 327, 331, 341, 407, 553, 555
- 기자조선 410, 411, 413, 414
- 김교헌 144, 445~454, 529, 536, 605
- 김부식 410, 411, 527, 528